

바이오 데뷔골 '위기의 전남' 구하다

전경준 감독대행 체제 첫 승
K리그2 24라운드
아산에 2-0...5경기만에 승리

전남드래곤즈가 무승 고리를 끊고 전경준 감독대행 체제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전남은 지난 19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아산무궁화와의 2019 K리그2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19라운드 대전시티즌전 2-0 승리 이후 4경기 연속 무승(1무 3패)을 기록했던 전남은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또 성적 부진으로 파비아노 감독이 경질된 뒤 꾸러진 전경준 감독대행 체제 이후 3경기 만에 나온 승리가기도 하다. 아산은 주축 선수들이 대거 전역을 하면서 새로운 전력으로 어려운 승부에 나섰다. 위기의 전남을 구한 건 지난 7월 초 새로 영입한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바이오였다. 팽팽하던 승부가 전개되던 전반 32분 전남 진영에서 길게 올라온 공이 상대 수비수 맞고 뒤로 흘렀다. 공을 잡은 김건용이 페널티아크에 있던 김경민에게 패스를 했다. 김경민은 왼쪽에서 쇄도한 바이오에게 공을 넘겨줬고, 바이오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아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5경기 만에 터진 바이오의 K리그2 데뷔골이었다. 그리고 후반 39분에는 정재희의 오른발이 움직였다. 전남의 역습이 전개됐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전남드래곤즈의 바이오(95번)가 지난 19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아산무궁화와의 2019 K리그2 24라운드 경기에서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잡은 정재희가 빠르게 아산 진영으로 올라갔다. 수비수 두 명을 달고 페널티박스로 진입한 정재희는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시도하면서 추가골을 넣었다. 앞선 안양 원정에서 전반에만 3실점을 하면서 혼

들렀던 전남은 이번에는 전반전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분위기를 끌고왔다. 전남은 이후 후반전을 실점 없이 막으면서 5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7승 5무 12패가 된 전남은 승점 26점으로 8위 자리를 유지했다. 7위 부천FC(7승 8무 9패

·승점 29)와는 승점 3점 차다. 전남에 승리를 내준 4위 아산(11승 4무 9패·승점 37)은 5위 아산 그리너스(10승 6무 8패·승점 36)에 승점 1점 차로 쫓기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정정용 U-20 감독

2021년까지 전담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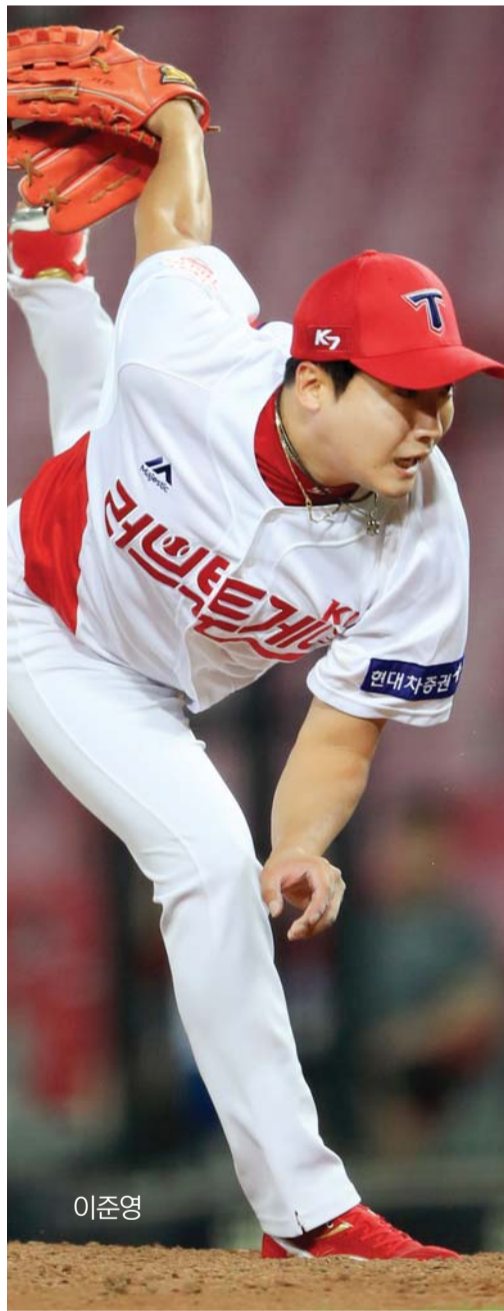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이 2021년까지 U-20 대표팀을 계속 맡는다. 대한축구협회는 "정정용 감독을 U-20 대표팀 전담 감독으로 선임했다"며 "계약 기간은 2021년 FIFA U-20 월드컵 종료까지 약 2년"이라고 20일 밝혔다.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김판곤 부회장은 "선수 발굴, 팀 관리, 전술 대응, 소통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정 감독의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준비할 적임자라고 판단해 전담 계약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감독은 2006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전담지도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유소년팀을 지도했다. 협회의 유소년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전담 감독이 된 정정용 감독은 앞으로 U-20 대표팀 지휘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성인 대표팀과 유소년 대표팀의 가교 구실을 하는 U-20 대표팀을 전담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U-20 월드컵 결승전을 치르며 얻은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대표팀 철학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감독은 2021년 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18세 이하(U-18) 대표팀 선수 34명을 26일 목포축구센터에 소집해 점검한다. /연합뉴스

KIA 그라운드 빛내는 조연

패전조 이준영·전문 대주자 유재신
팀 승리 위해 최선을 다...소금같은 선수

승리의 주역으로 환호를 받는 선수들 사이에서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는 조연들이 있다. 이미 기울어진 승부에서 묵묵히 마운드를 지키는 패전조 이준영과 한번의 질주를 위해 온 몸을 던지는 대주자 유재신. 화려한 주연은 아니지만 KIA 타이거즈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선수들이다. 팬들의 관심이 사그라진 순간 이준영은 마운드에 오른다. 흐름이 기울어진 경기에 등장하는 만큼 1구 1구에 환호가 쏟아지지 않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공을 던진다. 많은 이닝을 책임지면서 패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이준영은 "최대한 이닝을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점수를 많이 안 줘야 하는데 점수를 주다 보니까 그런 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항상 집중하고 긴장하고 있다"며 "제가 안 나가야 팀이 좋은 건데 나가면 최대한 많은 이닝 던지고 점수 안 주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14년 차 유재신도 자신의 쇼타임을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6일 SK전 끝내기 승리에 유재신이 있었다. 0-0으로 맞선 9회말 1사 1루에서 대주자로 들어가 유민상의 안타 때 재치있게 3루로 향했고, 안치홍의 3루 땅볼 때 호흡을 파고들었다. 몸을 사리지

않은 슬라이딩으로 포수 이재원과 충돌한 유재신은 어렵게 승리를 확정하는 득점을 만들었다. '득점'이 그의 역할이기 때문에 몸을 사릴 여유가 없다. 유재신은 "팀을 이겨야 하고 한번 나가서 실수하면 안 된다. 백업들은 실수하고 못하면 안 된다. 대주자로 나갔을 때 어떻게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어쩌다 한번 주어지는 기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또 다른 기회가 없다는 걸 잘 아는 만큼 유재신은 주어진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런 만큼 크고 작은 부상도 많다. 지난 시즌 대주자로 나가 호흡이 들어오다 갈비뼈에 금이 간 적이 있고, 공을 잡으려 슬라이딩을 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유재신은 "무조건 득점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을 날리게 된다"며 "수비 도중 부상을 당했을 때는 모처럼 선발로 나갔는데 당시 투수가 (양)현종이었다. 실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수비에 신경을 썼다. 맞는 순간 안타였는데 그걸 잡아보겠다고 했다"고 돌아봤다.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는 이준영과 유재신의 꿈이 만난 패전조와 대주자는 아니다. 이준영은 "일단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스피드도 올려야 하고 제구도 더 다듬어야 한다"며 "내가 더 잘하면 다른 자리도 갈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유재신도 "솔직히 욕심이 없으면 야구 선수가 아니다. 욕심이 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다"면서도 "항상 준비하고 내 역할을 잘하면서 욕심을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준영



유재신

미리 보는 월드시리즈

다저스 VS 양키스 6년만에 격돌
LA서...류현진 24일 출전 예정

미국프로야구(MLB) 파워랭킹 1, 2위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6년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격돌한다. 다저스는 24~26일 홈인 다저스스타디움으로 양키스를 불러들여 3연전을 치른다. 양키스는 2013년 7월 말 이래 6년 만에 다저스스타디움을 찾는다. 아메리칸리그팀과 내셔널리그팀이 맞붙는 인터리그가 도입된 뒤 다저스와 양키스가 정규리그에서 대결하는 건 이번이 5번째다. 1958년 로스앤젤레스를 연고지로 옮기기 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을 홈으로 사용하던 다저스와 뉴욕 브롱크스를 연고로 한 양키스의 일전은 전통의 매치업으로 꼽힌다. 특히 19일 현재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최고 승률(82승 44패·승률 0.651), 양키스가 아메리칸리그 최고 승률(83승 43패·승률 0.659)을 올린 시점에서 격돌하는 터라 '미리 보는 월드시리즈'의 느낌도 준다. 선발 로테이션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류현진(다저스)은 24일 오전 11시 10분 양키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양키스는 막강한 방망이를 앞세운 팀이다. 리그 팀 득점 1위(747점), 팀 홈런 2위(227개), 팀 장타율 2위(0.488) 등 공격 전 지표에서 리그 1, 2위를 다툰다. 클레이버 토레스(29개) 등 세 타자가 홈런 20개 이상을 쳤고, 두 자릿수 홈런을 때린 타자는 11명에 달한다. 다저스의 파워도 양키스에 못지않다. 리그 팀 홈런 1위(218개), 득점 1위(693점), 팀 장타율 1위(0.475)를 질주한다. 코디 벨런저가 42개, 맥스 먼시가 31개를 치는 등 홈런 파괴력은 양키스와 비슷하다. 리그 팀 평균자책점 1위(3.35)를 달리는 다저스 방패는 양키스의 창을 꺾을 최고의 무기다. 마운드 중심에는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1.64) 류현진이 있다. '선수주관'에 열리는 두 팀의 경기에선 선수들이 각자의 애칭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뛰어도 다른 불거리를 참 참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몬스터' (괴물)를 유니폼에 새기고 등판했다. 한편 올 시즌 평균 관중 수에서 다저스가 1위(4만8660명), 양키스가 3위(4만1871명)에 이를 만큼 두 팀은 전국구 인기 구단이다. /연합뉴스

끝까지 4억8천만원 PGA 투어 챔피언십 22일 개막

임성재 신인 유일 출전...우승 상금 181억
'우승 보너스 181억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8-2019시즌 최종 전인 투어 챔피언십이 22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7385야드)에서 개막한다. 이 대회는 2018-2019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로 19일 끝난 BMW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30명만 출전하는 PGA 투어의

'월드시리즈'와 같은 성격이다.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는 우승 보너스 1500만달러(약 181억원)를 주고 최하위인 30위를 하더라도 4억8000만원 정도 되는 39만5000달러를 받는 '돈 잔치'이기도 하다. 1500만달러 가운데 1400만달러는 우승 직후 챔피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달러는 은퇴 후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된다. 투어 챔피언십은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로 진행되는 BMW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1위를 달린 저스

틴 토머스(미국)는 10언더파를 안고 대회를 시작한다. 2위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는 8언더파, 3위 브룩스 켈카(미국)는 7언더파를 미리 받고 1라운드에 들어간다. 페덱스컵 순위에 따라 어드밴티지를 미리 준 가운데 시작한 이번 대회 결과로 2018-2019시즌 챔피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토머스가 우승하면 우즈에 이어 페덱스컵을 두 번 제패하는 선수가 된다. 우즈는 2007년과 2009년 페덱스컵 챔피언이 됐

고, 토머스는 2017년에 이어 2년 만에 패권 탈환에 도전한다. 우즈는 올해 페덱스컵 순위 42위에 그쳐 이번 대회 '타이를 방어'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해 챔피언 로즈는 페덱스컵 순위 17위를 기록, 2언더파에서 이번 대회를 시작한다. 지난해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뽑혔고 이번 시즌 968만달러를 벌며 상금왕에 오른 켈카도 생애 첫 페덱스컵 왕좌에 도전장을 던졌다. 한국 선수로는 신인 임성재가 24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합류했다.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한 것은 2016년 김시우 이후 3년 만이다. 2018-2019시즌 신인 중 유일하게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임성재는 아시아 최초의 PGA 투어 신인상 수상이 유력하다. PGA 투어 신인상은 투어 회원들의 투표 결과로 선정한다. /연합뉴스